

1970년부터 1999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MMCA) 해외교류 전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s of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from 1970 to 1999

연구석¹

Kusuk Yun¹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교류와 관련된 MMCA 전시를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30년간 MMCA에서 해외 교류와 관련된 전시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국제적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던 80년대에 해외작가들의 국적 다양화와 함께 국제전시의 양적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판화, 도예 등 특정 미술장르를 강조하는 유형의 전시와 함께 근대, 현대와 같이 시대를 드러내는 유형의 전시가 70, 80년대에 뚜렷하게 발전하였다. 국가로는 ‘유럽-아시아’라는 구도에서 80년대 이후 비서구권 국가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유형의 전시가 활발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80년대 이후 정치적 영향에 따라 대규모 국제전이 발전하는가 하면, 뚜렷한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개최된 미술전시 역시 등장하였다. 그리고 몇몇 명성 있는 해외작가들의 개인전이 90년대까지 뚜렷하게 발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 기관과의 교류가 90년대 이후 등장하여 MMCA의 국제적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90년대에는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시가 활성화되었다.

핵심어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데이터, 미술전시, 전시유형, 미술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MMCA exhibitions related to overseas exchanges from 1970 to 1999 through the museum's website to develop a discourse on globalization at art museums. Over the past 30 years, the MMCA's exhibitions related to overseas exchange have steadily increased. In particular, in the 1980s, when international events were actively being held, a quantitative increase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appeared along with a marked diversification of the nationalities of the foreign artists exhibited. In the 1970s and 1980s, art exhibitions emphasizing specific art genres, such as printmaking and ceramics, as well as art exhibition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such as the ‘modern’ and the ‘contemporary’, developed markedly. In terms of the countries exhibited, exhibitions introducing the works of artists from non-Western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since the 1980s, with an ongoing emphasis on European and Asian artists. In particular, since the 1980s, large-scale international exhibitions have developed according to political considerations, while art exhibitions held based on a clear theme have also

¹ Department of Fine Art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Lecturer]
e-mail: yonkusuk@hanmail.net

Received(January 19, 2024), Review Result(1st: February 7, 2024), Accepted(March 8, 2024), Published(March 31, 2024)



© 2024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ppeared. Solo exhibitions by foreign artists also developed markedly through the 1990s, and the trends of the international art stage, as seen through a number of famous artists, appeared at the MMCA as well. In addition, exchanges with foreign institutions have emerged since the 1990s, expanding the MMCA's international activity. In particular, in the 1990s, a new type of exhibition introducing representative Korean artists abroad was developed.

Keyword : MMCA, Art Data, Art Exhibition, Art Genres, History of Ar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의의

90년대 이후 국내 미술계에 유입된 ‘세계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하 MMCA)은 세계 여러 국가 출신 작가들은 물론, 휘트니미술관과 같은 국제적 명성을 자랑하는 해외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제적 미술 경향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미술무대에서 해당 기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드러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국제미술무대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Art in America, Artforum, Flash Art와 같은 해외잡지에 MMCA의 전시들이 꾸준히 소개되었으며, 미술작가들의 국제적 인지도를 나타내는 Kunstkompass와 Artfacts와 같은 국제 랭킹 시스템 역시 MMCA의 전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1]. 또한,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해외 우수 기관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미술 한류 확산’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기관과 다수의 공동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팽창에서 그동안 MMCA가 개최했던 해외교류와 관련된 전시를 연구하는 일은 세계화에 대한 담론을 미술관 전시라는 제도권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MMCA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전시’ 카테고리에서 해외교류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교류’란 자아와 타자라는 구도에서 살펴보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크게 해외작가들의 국내 유입과 국내작가들의 해외 소개 그리고 해외 교류와 관련된 모든 미술전시를 뜻한다.

MMCA의 역사가 50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반세기에 대한 미술전시 연구는 시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대적 순서에 의해 미술관 개관 초기인 1970년부터 1999년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MMCA의 국제교류가 해당 시기에 어떻게 발전·진화하였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MMCA 전시 흐름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30년의 연구 기간을 1970년-1979년 1기, 1980년-1989년 2기, 1990년-1999년 3기로 나누고자 한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모든 전시를 살펴본 결과, 해외교류와 관련된 전시는 고유의 성격에 따

라 해외작가들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해외작가전’, 국내작가와 해외작가 1인 이상이 혼합되어 개최되는 ‘국제혼합전’, 국내작가를 해외에 소개하는 ‘국내작가해외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국내작가해외전, 해외작가전, 국제혼합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떤 전시가 두 개 이상의 성격을 드러낼 때 상위개념의 전시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따랐다.

전시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항목별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 먼저, 해외작가전의 경우 해외작가나 해외 기관의 협력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로 작가의 출신지나 협력 기관의 국가를 파악하고, 작품의 장르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혼합전의 경우 해외작가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작가들의 국적을 추적한 후 시대별 개최된 전시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국내작가 해외전의 경우 어떤 작가나 전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해외에 소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순회전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 소개된 MMCA의 전시를 국내에 순회하는 형태로 시대별 나타나는 이러한 유형의 전시를 추적·파악할 것이다.

1.3 현행연구 조사

2000년대 이후 전시를 바탕으로 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는 다양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도 대부분은 특정 시대의 미술 경향이나 미술사조를 강조하거나, 독재 정부라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미술관 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2][3]. 또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 공간 및 관람객과 연계된 미술관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추진되었다 [4][5]. 그리고 2010년 이후 미술관의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미술전시나 전시 공간의 상업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물론 [6][7], 미술관 소장품 및 미술관 아카이브 전시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8]. 게다가 본 논문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미술관이나 미술전시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담론 역시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다 [9]. 하지만, ‘미술관’이라는 제도권의 관점에서 국내 미술계의 흐름을 조망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특정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유형을 연대기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국내 미술관 연구에 있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2. 본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작가전, 국제혼합전, 국내작가해외전, 국내순회전을 모두 합한 결과 총 115건의 전시가 조사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 14건(12%), 2기 51(44%), 3기 50건(44%)으로 1기부터 3기까지 전시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작가전 89건(77%), 국제혼합전 17건(15%), 국내작가해외전 9건(8%)으로 나타났다.

[표 1] 1970-1999 MMCA 전시유형을 정리한 결과

[Table 1] 1970-1999 MMCA Exhibition type

구분	시기						총(수량/%)	
	1기		2기		3기			
해외작가전	12	86%	40	78%	37	74%	89	77%
국제혼합전	2	14%	11	22%	4	8%	17	15%
국내작가해외전	0	0%	0	0%	9	18%	9	8%
합계	14	12%	51	44%	50	44%	115	100%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에는 해외작가전이 12건(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제혼합전 2건(14%)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기 전시유형은 한국에 해외작가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가장 뚜렷하다. 2기에는 1981년 MMCA 최초의 미술전문가 출신 관장 이경성 취임, 1986년 과천관 건립, 학예 분야를 비롯한 미술관 전문인력 증강, 예산 증가 등 기관의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해외작가전이 40건(78%)으로 1기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혼합전이 11건(22%)으로 나타나 1기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하였다. 3기에는 해외작가전이 37건(74%)으로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1기와 2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국내작가해외전이 9건(18%)을 기록하여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국내외 작가가 영토를 중심으로 상호 소통하는 유형의 세계화 경향이 강조된다. 반면, 국제혼합전이 4건(8%)으로 2기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전시를 통한 MMCA 해외교류 현상은 3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시유형에 있어 해외작가전의 높은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제전 유형이 다변화하는 특징 역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대에 따른 전시유형의 세부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2.1 해외작가전

일반적으로 해외작가들과 관련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작가들의 출신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됐다. 국제미술무대에서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몇몇 서구권 국가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문화의 영향으로 비서구권 국가 출신 작가들의 활동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MMCA 전시를 통해 나타나는 해외 국가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글로벌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10]. 이러한 영토적 관점에서 MMCA 전시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의 연구 기간에 다국적 1건을 제외하고 17개 국가 89건을 기록하여 MMCA 전시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가 27건으로 전체에서 3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한다. 이 수치는 13건으로 2위를 기록한 독일과 무려 15포인트 차이를 드러내어 프랑스 미술에 대한 MMCA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아가 9건(10%)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과 일본이 각각 7건(8%)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과 영국이 각각 6건(7%)을 기록하였고 호주와 헝가리가 각각 3건(3%), 2건(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인도, 벨기에 등 나머지 8개 국가가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 국가 3개가 최상위권, 아시아 국가 2개가 상위권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영미권 국가 3개가 중상위권을 기록하여 ‘유럽-아시아-영미권’이라는 규칙적 구도를 형성한다.

[표 2] 1970-1999 MMCA 해외작가전 국가를 조사한 결과

[Table 2] 1970-1999 MMCA International exhibition-overseas countries

국가	시기			총(수량/%)	
	1기	2기	3기		
프랑스	4	12	11	27	30%
독일	2	6	5	13	16%
이탈리아	0	6	3	9	10%
중국	2	4	1	7	8%
일본	0	2	5	7	8%
미국	1	3	2	6	7%
영국	1	2	3	6	7%
호주	1	1	1	3	3%
헝가리	1	0	1	2	2%
네덜란드	0	0	1	1	1%
인도	0	1	0	1	1%
벨기에	0	0	1	1	1%
캐나다	0	1	0	1	1%
이스라엘	0	0	1	1	1%
유고슬라비아	0	0	1	1	1%
스웨덴	0	0	1	1	1%
부르키나파소	0	1	0	1	1%
다국적	0	1	0	1	1%
합계	12	40	37	89	100%

해외작가전의 시기를 살펴보면, 1기에 7개 국가 12건에서 2기에 11개 국가 40건으로 두 시기 사이 전시 건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3기에는 37건으로 2기보다 전시 수가 감소했으나, 국가는 14개로 2기보다 늘어나 90년대 전시 경향의 다원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 국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프랑스, 독일, 중국이 24건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2기에는 프랑스(12건), 독일(6건), 이탈리아(6건) 같은 서유럽의 강세에서 중국의 인지도 역시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영국이 2-3건을 기록하여 MMCA 해외전시가 1기에 이어 서

양과 한반도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기 역시 독일(5건)과 프랑스(11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5건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3건), 미국(2건), 중국(1건)이 2기보다 둔화한다.

다음으로 해외작가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전시유형을 작가 개인이나 2인을 소개하는 ‘개인전/2인전’, 사진, 판화, 유화, 도예, 서화, 수채화와 같은 특정 미술장르가 전시 제목을 통해 강조되는 전시를 ‘미술장르전’, 현대, 근대, 당대 등 미술작품을 시대적 구분을 통해 소개하는 전시를 ‘시대전’, 미술장르와 시대구분을 동시에 강조하는 유형의 전시를 ‘시대/장르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특정 미술전시를 소개하는 유형을 ‘기관전’, 특정 미술사조, 미술 경향, 미술 흐름 또는 뚜렷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전시를 ‘미술사조/주제전’, 종교적 색채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전시를 ‘종교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7개로 구분된 전시유형을 중심으로 해외작가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표 3] 1970-1999 해외작가전 전시유형을 조사한 결과

[Table 3] 1970-1999 Types of overseas artists exhibition

구분	1기	2기	3기	총(수량/%)	
개인전/2인전	2	11	16	29	33%
미술장르전	7	11	4	22	25%
시대/장르전	1	9	5	15	17%
시대전	1	3	6	10	11%
기관전	1	1	4	6	7%
미술사조/주제전	0	2	2	4	4%
종교전	0	3	0	3	3%
총	12	40	37	89	1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에 특정 미술장르를 강조하는 해외전시가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전시로 1972년 개최된 「미국판화특별전」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전시에는 R. Lichtenstein, C. Oldenburg, A. Calder, R. Rauschenberg 등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해외 유명작가들과 함께 60여 명의 미국 작가들이 ‘판화’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복제미술을 대표하는 판화가 평면/회화와 같은 ‘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미술작품에 비해 확보 및 설치가 쉽고 전시 비용 역시 저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70년대 MMCA가 예산 부족 및 전문인력 부재에서 어떻게 해외 유명작가들을 소개했는지에 대한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MMCA는 「독일현대도예전」(1976), 「호주현대사진전」(1977)과 같은 전시를 소개하였다. 도예와 사진 역시 회화, 조각과 비교하면 작품 확보 및 전시 진행이 쉽다. 다음으로 M. Chagall(1971), J. F. Millet(1972)와 같이 미술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진 모더니즘 작가들의

개인전이 2건 개최되었다. 또한, 「루브르미술관 소장 현대프랑스 명화전」(1970)과 같은 해외 유명기관의 인지도를 강조하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2기 역시 미술장르에 치중된 유형의 전시가 11건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술장르에 대한 뚜렷한 구분은 융복합과 다장르 미술 경향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는 다른 모더니즘적 미술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전과 시대/장르형 전시가 총 12건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대/장르형 전시들은 1980년 개최된 「영국회화의 색채전」과 같이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해외작가들을 소개하거나, 「삽화가로서의 현대미술가전」(1983), 「프랑스현대파스텔화전」(1986), 「현대미국세라믹전」(1987), 「20세기 이태리 판화 드로잉전」(1987), 「프랑스판화 신세대전」(1989)과 같이 도자, 판화, 파스텔, 드로잉, 삽화 등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미술장르는 미술사적, 미학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저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70년대에 이어 MMCA가 한정된 상황에서 미술장르를 중심으로 국제 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탄생 100주년 피카소전」(1982), 「살바도르 달리 판화전」(1982), 조선일보 창간 65주년 「라울 뒤피 명작전」(1985), 「오노레·도미에 판화전」(1980)과 같은 대중성이 높은 해외작가들의 개인전이 11건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80년대 전시유형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서양의 비중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들은 대부분 서양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로 한정되기에 MMCA가 지향하는 ‘현대’에 대한 관점이 모호하게 드러난다. 게다가 원본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는 판화라는 미술장르 역시 강조되고 있어 전시의 질(質)적 담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유럽 성화(아이콘)전」(1982), 「인도 불교문화 사진전」(1983), 「프랑스 성화전」(1984)과 같이 종교적 의미가 있는 전시와 「독일바우하우스전」(1989), 「엘로스톤 : 자연의 힘이 읊는 시」(1982)와 같은 전시들이 미술사와 관련된 특정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미술관 문화에 있어 종교적 색채의 강조는 ‘종교적 중립’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공공성에 대한 담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3기의 경우 판화, 도예, 공예와 같은 전시들이 다수 개최되었지만, 미술장르(4건)에 대한 편중이 2기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한다. 반면, 「일본현대미술전」(1997), 「전통과 혁신 - 이탈리아 현대미술전」(1996), 「영국현대미술 - 개성과 익명 사이에서」(1998)와 같이 특정 국가의 미술을 보편적 관점에서 소개한 시대구분 유형의 전시가 6건 조사되었다. 또한, 시대와 미술장르가 결합한 유형의 전시 역시 5건으로 나타나 80년대 미술전시 흐름과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3기에는 개인전이나 2인전 형태의 전시가 뚜렷하게 발전하였다. 몇몇 대표적 전시를 살펴보면, 「워홀과 바스키아의 세계전」(1991), P. Soulages(1993), M. Ernst(1994), B. César(1996), C. Boltanski(1997), A. Tadao(1998), M. Pistoletto(1994), J. Beuys(1991)와 같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이 개인전이나 회고전 형태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더비즈 인상파 현대회화전」(1990), 「카르티에 재단 소장품전」(1994), 「독일 뷔르트미술관 소장품 - 20C 미술로의 산책」(1997)과 같이 해외 특정 미술관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최되었으며, 1993년에는 「93 휘트니 비엔날레」가 MMCA에서 개최되어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전화」(1991), 「한·러수교 10주년 기념전 : 러시아 천년의 삶과 예술」(2000)과 같은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전시가 개최되어 80년대 전시 경향을 계승하고 있다.

2.2 국제혼합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작가들과 해외작가들을 동시에 소개하는 국제혼합형 전시는 총 17건으로 조사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 2건, 2기 11건, 3기 4건으로 이러한 유형의 전시가 2기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3기에 줄어드는 불규칙성을 관찰할 수 있다.

[표 4] 1970-1999 MMCA 국제혼합전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Table 4] 1970-1999 International exhibition/number of countries

국가	시기			총(수량/%)	
	1기	2기	3기		
국제	1	6	2	9	53%
일본	1	1	1	3	17%
미국	0	2	0	2	12%
프랑스	0	1	0	1	6%
캐나다	0	0	1	1	6%
아시아	0	1	0	1	6%
합계	2	11	4	17	100%

전시를 살펴보면, 1기에 「제2회 한일미술작품교류 서울전」(1974)과 「여성세계사진전시회」(1975)가 개최되어 70년대 국제교류를 대변하고 있다. 2기에는 1983년 한국청소년미술협회의 후원으로 「서울국제임팩트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에는 무려 29개국에서 온 150명(국내 20명, 해외 13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320점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24개국 출신 작가들의 309점을 소개하는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또한, MMCA 과천관 개관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준공 개관 기념전」이 열렸는데, 이 전시는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86 서울아시아현대미술전」, 「프랑스 20세기 미술전」과 함께 이미 해외작가전 유형에서 소개한 「와이즈만 컬렉션전」과 같은 4개의 독립된 전시로 구성되었다([표 4]에서 이 4개의 전시는 1개의 값으로 계산됨). 1988년에는 서울국제올림픽을 계기로 「국제현대회화전 기증작품특별전」과 「국제현대회화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서울올림픽이

MMCA 전시 구성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기증작품특별전」만 살펴보면, 한국의 김창열과 권영우를 포함하여 41개국 출신(서유럽 14, 동유럽 7, 미주 5개, 아프리카 3개, 중동 3개, 아시아 9개)의 62명 작가가 각 1점씩 기증한 작품을 소개하여 해당 전시가 대규모 모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관장이었던 이경성은 본 전시의 ‘범세계적인 규모’를 강조하였으며, 이때 기증된 작품들은 현재까지 MMCA 해외작가 소장품의 바탕을 이룬다 [11].

1986년 과천관에서 개최된 「'86 서울아시아 현대미술전」 역시 작가 156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 전시는 서울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되어 MMCA에 대한 올림픽의 영향력이 더욱 강조된다. 1989년에는 서울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현대미술전」이 기획되었다. 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전시에는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4개 국가에서 온 97명 작가의 215점 작품이 소개되어 당시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내 미술계의 변화가 더욱 강조된다. 그리고 80년대에는 「개화기풍물사진전」(1982)이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는 근현대에 활동한 서양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한국과 관련된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컴퓨터아트를 소개하는 「미스터리어스전」(1987), 동양의 종이 문화를 돌아보는 「현대종이의 조형 한국과 일본전」(198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 현대종교미술국제전」(1984), 프랑스와 한국의 건축 문화를 소개하는 「한·불 건축전」(1987)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미술전시가 소개되었다. 결과적으로 80년대 개최된 국제혼합전은 국가의 중요한 국제 행사와 맞물려 발전하였다는 특징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미술을 탐구하고 소개한다는 시대적 변화를 드러낸다. 또한, 천주교와 관련된 전시 개최는 앞서 살펴본 80년대 종교적 색채가 강한 해외작가전의 사례를 상기하였을 때, 국립미술관으로서 공공성에 관한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3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전시는 「서울국제미술제」(1990-1991)와 「서울국제현대미술제」(1994)이다. 전자의 경우 25개국 출신 58명의 작품 123점을 소개하여 80년대 개최됐던 여러 초대형 국제전에 비해 다소 작다. 후자의 경우 한국미술협회가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대규모 전시로 44개국 출신 95명의 해외작가를 소개하고, 한국의 476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한국의 이경성과 P. Restany, F. Quintana, J. Baal-Teshuva, P. C. de Saint-Cyr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미술비평가와 커미셔너를 중심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해외의 경우 회화, 조각, 판화 등 3개 부문으로 이루어졌고, 국내의 경우 동양화, 서양화, 조각, 판화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 B. César, J. Beuys, A. Warhol, C. Close, J. Koons, W. Guangyi와 같은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는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40세 이상의 미협회원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밖에도 1991년에는 한·일 작가 60여 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일현대조각전」이 개최되었고, 1994년에는 목우회 정기전과 캐나다 작가 「합동전」이 소개되어 국내 특정 미술 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가 강조되었다. 또한, 90년대 개최된 국제혼합전 유형의 전시는 10년 전보다 둔화

하여 80년대 국제 전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3 국내작가해외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작가해외전은 90년대에만 나타나는 전시유형이다. 이는 80년대 국제미술무대 담론의 수용이 국내에 소개된 해외작가들의 전시 중심에서 이제는 한국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해외전시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일본, 중국, 유고, 영국, 독일, 스페인이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당 유형의 전시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의 경우 1997년 「97한국현대미술 해외전」을 계기로 이루어진 전시를 제목 및 성격에 따라 2건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전시를 살펴보면, 인스티튜트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개최된 전시 「Inside Out」은 김영진, 박화영, 임연선, 배병우 등 당시 30-40대 초반의 젊은 작가들이 초대되어 한국현대미술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셀로프 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 「Ancient Traditions/New Forms」에는 김종학, 김호득, 김홍주 박기원, 박현기, 윤석남, 최정화, 배병우, 정광호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평면,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였다. 결국, 2개 전시의 공통점은 다양한 예술장르를 선보이는 젊은 작가들이 주축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90년대 가장 주목할 만한 해외 전시로 1995년 이탈리아 베니스 Palazzo Vendramin ai Carmini에서 개최된 「호랑이의 꼬리 : '95 베니스 한국현대미술 15인전」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전시에는 곽덕준, 윤명로, 이규선, 이종상, 임옥상, 정연희, 하종현, 김수자, 안성금, 윤석남, 이형우, 조덕현, 심문섭, 조성묵과 같이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5명이 소개되었다. 이 전시 역시 「97한국현대미술 해외전」과 유사하게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평면, 설치, 조각, 비디오, 민중미술 등 미술장르나 미술 흐름이 강조된다. 특히, 이 전시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 따라 개최되어 ‘한국미술의 세계화’라는 명제 앞에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1992년 영국 테이트 갤러리 리버풀에 소개된 「한국현대미술 영국 테이트 갤러리전-자연과 함께」에는 정창섭, 윤형균, 김창열, 박서보, 이우환, 이강소 등 한국 모노크롬이나 추상미술과 연관된 6명 작가의 작품 71점이 소개되었다. 테이트 갤러리가 국제미술무대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는 것을 상기했을 때 해당 기관에 한국 작가들을 대규모로 소개한 것은 앞서 살펴본 「호랑이의 꼬리」 전시와 함께 ‘한국미술의 세계화’라는 과제 앞에 특별한 의미를 드러낸다. 1998년에는 MMCA와 독일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 「98한국현대미술 독일 순회전 - 호랑이의 해」가 베를린에 있는 해외 세계문화의 집과 아헨에 있는 루드비히 포룸에서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조덕현, 강익중, 전수천, 최정화, 배병우 등 13명의 국내 중견작가의 작품 15점이 소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전시의 참여 작가와 함께 언급된 작가들 모두 현재 국제미술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작가들의 MMCA 전시 참여가 국제미술무대 진출에 있어 중요했음

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한국 작가 26명의 작품 51점을 소개하는 「한국현대판화-스페인 순회전」이 스페인 국립판화미술관에서 개최되어 앞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전시와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한 MMCA의 국제교류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1991년에는 한·유고 수교를 기념하여 유고에 있는 자그레브 중앙미술관을 비롯한 3개 다른 미술관에서 「한국현대회화 유고순회전」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하종현, 이종상, 이두식, 김기창, 송수남 등 25명의 한국화 작가가 소개되어 90년대 당시 MMCA의 국제교류가 다양한 연령대의 다장르 미술 경향과 함께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미술에도 관심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991-1999 MMCA 국내작가해외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

[Table 5] 1991-1999 Overseas exhibitions of domestic artists

연도	전시명	기관	국가	규모
1991	한국현대회화 유고순회전	자그레브 중앙미술관	유고	25명 (84점)
1992	한국현대미술 영국 테이트 갤러리전-자연과 함께	테이트 갤러리 리버풀	영국	6명 (71점)
1995	호랑이의 꼬리 : '95 베니스 한국현대미술 15인전	베니스 Palazzo Vendramin ai Carmini	이탈리아	15명
1995	한국현대미술전	북경미술관	중국	36명 (69점)
1996	현대한국미술 일본전	동경국립근대미술관, 오사카국립국제미술관	일본	14명 (52점)
1997	97한국현대미술 해외전/ Ancient Traditions/New Forms	조셀로프미술관	미국	12명 (16점)
1997	97한국현대미술 해외전/ Inside Out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미국	4명 (12점)
1998	98한국현대미술 독일 순회전 - 호랑이의 해	세계문화의 집과 아헨에 있는 루드비히 포름	독일	13명 (15점)
1999	한국현대판화-스페인 순회전	국립판화미술관	스페인	26명 (51점)

아시아 국가의 경우 1995년 개최된 「한국현대미술전」은 국내작가 36명의 작품 69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로 남관, 백남준, 이강소, 이우환, 황인기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 전시에 참여한 몇몇 작가들은 앞서 살펴본 유럽에 소개된 다양한 형태의 해외전 참여와 교차하여 MMCA의 세계화가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96년 도쿄국립근대미술관과 오사카국립국제미술관에 순회전 형태로 소개된 「현대한국미술 일본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14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 전시에는 김수자, 배병우, 윤석남, 김홍주 등 앞서 언급한 여러 해외순회전에 참여한 작가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3. 결과 및 논의점

1970년부터 1999년까지 MMCA 전시유형을 살펴본 결과 30년간 해외교류와 관련된 전시들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의 전반적 특징으로는 먼저, 해외작가전의 뚜렷한 성장에서 80년대에는 국제혼합전이 발전하였고 90년대에는 국내작가해외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해외작가전의 경우 프랑스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높은 인지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과 같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성장 역시 눈에 띄게 나타난다. 국제미술무대에서 인지도 높은 미국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MMCA 전시에서 ‘유럽-아시아’라는 이원론적 구도가 형성된다. 또한, 해외작가전은 30년간 전반적으로 미술장르와 미술시대 구분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판화, 공예, 사진 등 예술적 가치의 중요성이 순수회화나 조각보다는 높지 않거나 복제가 가능한 미술장르가 중심을 이룬다. 이와 더불어 80년대 이후에는 개인전이나 2인전과 같은 전시유형이 활발하게 발달하였으며,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전시 역시 발달하였다. 또한, 미술사조나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유형의 미술전시 역시 눈에 띄게 나타난다. 90년대에는 80년대에 이어 개인전과 2인전 유형의 전시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미술사조나 주제전에 대한 강조 역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유명기관과의 협력 전시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제혼합전의 경우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과 같은 굵직한 국제 행사 등의 영향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많은 해외작가를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들이 발전하게 된다. 90년대는 이러한 유형의 전시가 양적으로 하락하지만, 해외 유명작가들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특징을 드러낸다. 특히, 국내 특정 미술 단체가 MMCA 전시를 주도하는 등 민간에서의 해외교류 역시 활발하였다. 국내작가 해외전의 경우 90년대 전반에 나타나 해당 시기 국제교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미국과 아시아 국가 역시 한국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 당시 MMCA가 80년대 세계화의 흐름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국제전을 통해 어떻게 미술의 영토를 넓혀나갔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엔날레나 해외의 상징성 있는 문화예술기관을 활용하여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는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작가 중 상당수가 90년대 개최된 해외 전시에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MMCA가 특정 미술작가를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미술을 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K. S. Yun, "The role of exoticism i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an empirical study of international art magazines from 1971 to 2010", *Revista do Instituto de Estudos Brasileiros*, vol. 69, April 2018, pp. 362-388, doi: 10.11606/issn.2316-901X.v0i69p362-388.
- [2] J. R. Kim, "A Study on 'the White' of Korean Art's 'Monochrome Painting' in the 1970s - A basic review for the exhibition of 'Monochrome Painting'", *Korean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vol. 18, no. 2, December 2021, pp. 89-96, doi: 10.34144/EDS.36.10.
- [3] Y. S. Jung, "Experimental Art Exhibitions of Korea's AG(Avant-Garde) Group", *Association of Modern Art History*, no. 51, June 2022, pp. 31-56, doi: 10.17057/kahoma.2022..51.002.
- [4] S. H. Choi, "Drop-in Gallery Experience in Art Museums: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Relational Aesthetics",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vol. 16, no. 2, April 2015, pp. 51-74. doi: 10.20977/kkosea.2015.16.2.51.
- [5] H. J. Hong,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Object-Based Learning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7, no. 2, June 2012, pp. 47-67, doi: 10.15815/kjcaes.2012.7.2.47.
- [6] D. Y. Koh, "Marketplace as the Alternative Exhibition Site in the 1990s and the Chinese Contemporary Art World", *Journal of History of Modern Art*, no. 41, June 2017, pp. 7-35, doi: 10.17057/kahoma.2017.41.001.
- [7] H. J. Choi, J. K. Lee, "A Study of the Concept and Planning for the Exhibition Space of Place Marketing in Local Museum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vol. 5, no. 4, December 2010, pp. 87-98, doi: 10.35216/kisd.2010.5.4.87.
- [8] B. K. Heo, M. Lee, "Meaning and expansive value of archive exhibition - Focusing on the Ilmin museum of Art's 「New worker 1948-2020」", *Korea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vol. 17, no. 1, June 2020, pp. 65-76, doi: 10.34144/EDS.33.6.
- [9] J. H. Kim, "The Paradigm of the Contemporary Art Changing Exhibitions and the Modern Art of Korea",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no. 19, October 2003, pp. 79-103.
- [10] K. S. Yun, "The role of exoticism i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an empirical study of international art magazines from 1971 to 2010", *Revista do Instituto de Estudos Brasileiros*, no. 69, April 2018, pp. 362-388, doi: 10.11606/issn.2316-901X.v0i69p362-388.
- [11] MMCA, Special exhibition of donated works to the National Contemporary Painting, MMCA, 1988.